

Column

한국의료 대통합



김·임·웅·의
 해성병원장
 대한병원협회 학술위원장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들어 온지도 벌써 한 세기가 지났다. 서양의학이 처음 들어 온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의료에 전통한의학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의료 황무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다.

지금으로선 흔한 내과질환이나 외과질환, 산부인과질환은 물론 특별한 전염병이 유행만 해도 과질이 돈다고 하여 그의 해결을 무속인에게 맡기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서양의 의료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 위험을 무릅쓰고 현대의학의 문을 열었다. 이후 이들 의료선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나라에 현대의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헌신한지가 어언 1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우리나라의 여명기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 말, 저물어가는 조선시대의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에 들어와 활동한 이들 의료선교사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알렌, 윌리엄 제임스 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을 위시한 많은 선교사들이 서울과 평양, 광주, 원산, 부산, 대구, 전주, 재령, 해주 등지에서 기독교 전파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그 당시로서는 놀랍기만 한 현대의료를 제공했다.

이들 선교사는 한국인들에 대한 의료시혜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의학교육을 시키는데도 많은 공을 들였다. 그로 인해 현대의학의 여명기에 많은 한국인 의사가 배출되고, 그들 가운데 걸출한 인물들이 부각되기도 했다.

한일합방 이후 일제의 어두운 시절을 지내고 해방을 맞았으나 곧 6.25 동란이 발발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미 그 뿌리를 깊숙이 내린 서양의학은 그 속도를 늦추지 않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다.

한반도의 남쪽 인구만 해도 4,000만명을 넘어 선지가 이미 오래 되었고, 그에 비례하여 의사 수 역시 8만을 넘어선 것이 서양의학이 우리나라에 들어 온지 120년이 지난 현재의 의료상황이다.

500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이 처음 실시된 1977년 당시만 해도 10여 군대를 간신히 넘기던 의과대학의 수가 이미 40여 군대를 훌쩍 넘겼고,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그리고 보건의대학을 모두 합치면 그 숫자를 가림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때문에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하여 의사협회, 의학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그리고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의료기사협회 등 환자진료를 직접 맡고 있는 의사로부터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관리자단체 등 수없이 많은 보건의료단체들이 제 나름대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듯 많은 의료단체들의 활동 또한 대단하여 가까운 일본과의 학술교류는 물론 대만이나 필리핀, 중국, 미국 등 여러 나라 의료단체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가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과거 소비에트연방공화국 내에 있던 나라들 특히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적지 않은 수의 의사가 나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연관해서 그들 나라의 환자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치료를 해 주기도 한다.

지난 1990년에는 당시 소비에트연방공화국과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의학교류를 가진 바 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소비에트연방공화국 의학아카데미의 원수(회장)인 빠끄롭스키 박사 일행이 내한하여 한-소 의학교류를 위한 조인식을 체결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지난 일세기를 지나오는 동안 우리나라의 의료가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고, 의료기술의 발전에 못지않게 제도 또한 다양해져서 소위 의료보장시대의 문을 열어가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이렇듯 제도가 계속 변화되어 오면서 드디어 의료보장시대의 막이 열렸다고는 하지만 그에 따른 역기능으로 인해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적지 않은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그 대표적인 요인으로 의료보험 이후의 저수가정책을 비롯해 의약분업,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 그리고 규제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정책들은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의료단체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단체간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단체이기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단체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제도가 계속 변화되어 오면서 드디어 의료보장시대의 막이 열렸다고는 하지만 그에 따른 역기능으로 인해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적지 않은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여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그 동안 내재해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무난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단 우리 의사들이 몸담고 있는 병원협회나 의사협회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이들 양 단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뜻있는 인사들은 병-의협간에 빚어지고 있는 갈등에 적지 않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들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한시 바빠 갈등을 봉합하여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갈등의 요인들 가운데는 서로의 입장이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사협회가 의사 개개인이 회원인 반면 병원협회의 경우는 어느 개인이 아닌 수많은 직종으로 구성된 병원이라는 조직이 회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양 단체가 같은 의료단체라고는 해도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모두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상호 다른 이런 이해관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병-의협 양 단체간의 갈등은 결코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양 단체가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예를 들어 의권이라든지, 의료의 발전, 수가현실화 등 찾아보면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 현재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그리고 서울시의사회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기관지만 하더라도 하나로 통합한다면 질적인 면에서나 비용 면에서 유익한 점이 많고, 또한 이들 3개 기관지를 통합하여 일반신문 크기로 확대하고, 발간횟수도 격일간으로 늘인다면 언론으로서의 가치나 독자들로부터의 호응도 역시 크게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지금 각 전문지마다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필자는 3개 기관지의 통합운영을 권하고 싶다.

한때 의사협회에서 이사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후 오래 동안 병원협회 이사와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양 단체 간에 불화와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해 왔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여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그 동안 내재해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무난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KHA**